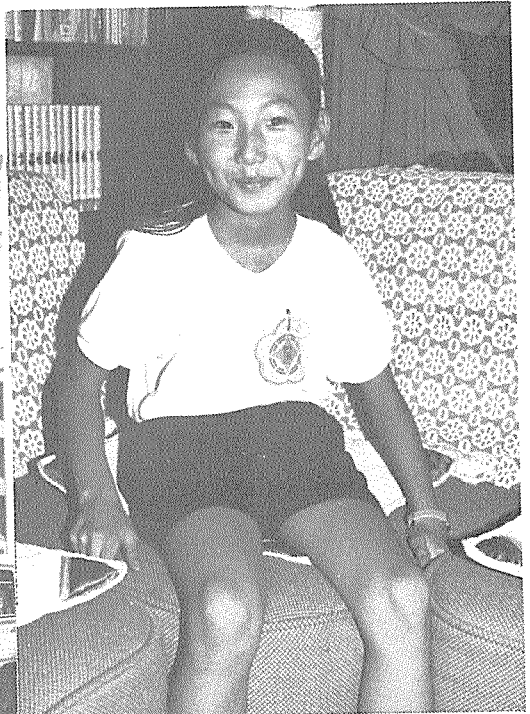


운동장애의 주범

선천성 심장병과 싸워

김정현은 9세의 어린학생. (대구시 만촌국민학교 5학년, 여)
언제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정현이는 건협 대구지부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요정밀진단 요망이라는 판정을 받고
전진곤 박사(대구지부 심전도 판독의사)로 부터 무료정밀진단을 받은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심장병

이긴 김정현 양

그는 심장 우심방과 좌심방 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
그는 성공적인 수술 결과로
건강이라는 광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

태어날때 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김정현(여 9세)

“선천성심장병” 이름 그대로 태어날때 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아픔을 주는 병명이다. 즉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997-3번지에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던 김 정현어린이(만촌국민학교 1년), 그 어린아이에게 어느날 크 나큰 불행이 닥쳐왔다.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기운이 떨어지고, 쉬 피곤해지는 현상. 정



수술을 집도 한
전진곤 박사는

“ 선천성 심장병이란
이름 그대로 태어날 때
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아픔을
주는 병이다. 즉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이의 예쁜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맴돌기 시작했다.

“선천성심장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정현이를 사랑하고 귀여워 했다. 그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꺼져가는 정현이의 생명에 불을 붙여주기로 결심하고 끝내 정현이의 얼굴에 함박 웃음이 생기도록 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켰다.

기자는 경부선의 시원한 고속도로 주변에서 풍요로운 전원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광경을 구경하면서 사파로 유명한 대구로 향했다. 이번 여행은 선천성심장병을 앓던 중 극적으로 수술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정현이라는 여자어린이의 투병생활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모든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재 확인 시키고자 취재길에 오른 것이다.

집단 심전도검사에서 이 증상을 발견했어요

『건협 대구시지부는 85년 5 월부터 대구시 교육위원회의 협조아래 대구시에 소재한 8개교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집단검사사업을 실시 했었습니다. 대상 국민학생 5,075명중 31명이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 되었어요. 그중에 김정현 학생이 속해 있었지요』 김정현 학생과 대구시지부가 인연이 맺어지게 된 상황을 이야기 하는 박정서무과장은 이렇게 말을 잇는다.

『11월21일 김정현 학생에 대하여 우심실비대의 의심이 가니 요정밀진단 판정을 학교측에 통보 했지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과장인 박과장은 말을 잇는다.

86년 7 월 23일 무료정밀진단을 받은 김정현

『어느날 대구지부 심전도판독의사인 영남대학교 소아과 전진곤박사로 부터 7 월 8 일 학생집단심전도검사 이상자 전원을 무료로 정밀진단 해주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위원회 협조하에 해당학교에 내용을 통보 하였지요. 그때 김정현이가 재학생인 만촌국민학교에서는 검진희망 일자를 7 월23일로 통보해주었습니다.』 옆자리에 같이 한 이상연 검사소장이 정현이가 병원에서 진찰받게 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

진한 흙 냄새를 풍기는 서민적인 가정분위기

확트인 대구시내의 아스팔트 도로를 보면서 정현이의 집으로 향했다.

집앞의 20여평쯤되는 공터에 참깨, 들깨, 호박등이 심어져 있어 농촌문명과 도시문명이 합쳐진 동네임을 느낄수가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마자 강아지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짖어대고, 모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과열매 또한 우리의 일행을 반겨주는 것 같은 포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 조경옥씨는

정현이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며, 잘놀고
해서 집안 식구들이 몸이 아픈
아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지요

잘 먹고, 잘놀아서 튼튼한 줄 알았어요.

『정현이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으며, 잘놀고 해서 집안 식구들이 몸이 아픈 아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 집안은 온통 어둠이 끼기 시작했었요.』 정현이를 건강한 아이라고 믿었던 어머니 조경옥씨(40세)의 말이다. 기자는 언뜻 무엇인가가 머리에서 지나쳐간다. 우리 옛 선조들의, 무조건 잘먹고, 잘놀면 건강한 아이라고 믿었던 사고방식이—.

『어느날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심전도집단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 저희 집식구들은 정현이에게 해로운 일은 아니고, 비용도 저렴해서 일단 받아보라고 했지요.』 정현이가 처음에 검사를 받게 된 상황을 설명 해 주는 조경옥씨.

무심코 실시했던 심전도 검사에서—.

『그러던 것이 아닌밤중에 흉두꺼라고 우심실비대에 의심이 가니 요정밀진단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에 아빠와(김영부씨 40세·군인) 의논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수소문하여 경북의과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지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담당의사가 말을 하더군요. 허나 학업때문에 안되니 방학중에 수술하기로 하고 기다렸지요.』 무심코 실시했던 심전도검사에서 정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잠까지 못자고 걱정했다는 어머니 조경옥씨에게서 기자는 진한 母性愛를 느낄수 있었다.

건협 대구지부에서 무료정밀진단 통보를 받고—

『매일매일 정현이의 몸 때문에 집안식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건협 대구지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현이의 심전도검사를 판독한 의사선생님이 무료정밀진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우리 정현이의 병을 처음 발견해준 건강관리협회에서 온 연락이라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하고 7월23일 진단 받기로 했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고마움을 덧붙혀 말하는 어머니 조경옥씨였다.

심장 우심방과 좌심방 벽에 구멍이 뚫렸다

정현이가 학교수업이 오전반이라 오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정현이를 진찰한 전진곤박사를 만나러 일행은 영남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천적으로 정현이는 심장에 이상이 있었읍니다. 즉 심장 우심방과 좌심방 가운데 있는 벽(중격)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합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지요. 병명은 「심방중격결손」이라고 칭합니다.』 정현이를 무료정밀진단하고 8월8일 수술까지 집도 한 전진곤박사의 말이다. 인정미가 넘치는 경상도 사나이의 구수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다.

『숨쉬기가 다른아이들 보다 순탄 치 못하거나, 땀박질이나 높은 언덕등을 걷기가 힘든 아이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많은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증상으로 정현이의 경우는 그 증상이 미세하여 본인이나 식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심전도검사서 증상을 체크하지 못하였더라면 상당히 나쁜 상태로 몸이 안좋게 되었겠지요. 모든 병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발견 조기 치료하



이상연 대구지부
검사소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학교와의 협조
체제가 아쉽다.

는 것이 환자나 의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요.』 75년도에 인술의 세계에 투신한 전진곤박사는 “인술은 환자와 보호자를 잘 이해 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건협에서 실시하는 집단심전도 검사는 매우 비관직함 일

『현재 건강관리협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전도 집단검사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하자는 의도이기때문에 많은 학교와 교육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 줄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힘이 될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을 다루고자 소아과를 택했다는 전진곤박사는 소아과의 특수성인 치료 의학과 예방의학도 계속 연구·공부하고 있는 학구파 의사이기도—.

정현이의 수술결과도 좋았다.

일행은 정현이가 학교수업이 끝날때라 정현이의 집을 방문했다.

아직까지 수술 한 부위가 튀어나온 정현이의 가슴을 본 기자는 마음이 여미는 감정을 천천히 진정시키고 정현이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하나도 안아파요. 친구들과라도 뛰면서 놀수도 있고—』 수줍음을 타서 그런지 정현이는 말의 끝맺음을 못한다.

『정현이는 원래 내성적이라 집에서든 말을 잘 안해요.』 어머니 조경옥씨가 정현이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정현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은? -

『국어—』

- 정현이는 이다음에 크면 무슨 일할래-

『선생님—』 말을 하면서 수줍은지 웃음을 짓는다.

- 가슴이 지금도 아파? 정현이. -

『아니 괜찮아요.』

“정현이의 예쁜 얼굴을 아저씨가 사진 찍어 줄께” 정현이는 웃는다.

가슴에 있는 수술자국과 정현이의 웃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해낸다.

부모, 학교, 교육위원회등이 협조해 주어야 할 학생집단검사

한편 이상연 대구지부 검사소장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모름지기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 하려면 집단심전도검사와 같이 여러가지 검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학교와의 협조체제가 아쉽다.』고 말하면서 학생 집단검사는 학교, 교육위원회, 부모등 모든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된다고 덧붙여 말한다.



서기홍 사무국장은

지역주민, 산업장근로자, 학교학생 등 지역보건, 산업장보건, 학교보건 계통을 연결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유대강화 및 협조체제 확립과 실효성이 있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투지, 신념, 끈기와 성의노력만이 검사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지난 7월에 새로 부임한 서기홍사무국장은 대구지부의 사업청사진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지역주민, 산업장근로자, 학교학생 등 지역보건, 산업장보건, 학교보건 계통을 연결한 사업을 추진 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유대강화 및 협조체제 확립과 실효성이 있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지, 신념, 끈기의 성의노력만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덧붙인다.

귀한 생명을 고통에서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은 ?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생각해본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수도 많은데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신체검사를 위한 예산도 부족실정이니 안타깝다.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없을까 ?

시·도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면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심장질환 관리를 위하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심장집단검사를 실시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슨병이든지 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병에 걸려 중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손을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또 귀한 생명들을 고통에서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오일민記)